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조 규 철
편집인 박 성 래
편집장 곽 혜 선
외대신문사
전화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발 행 일

외대학보

(1956.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301호
<주간>
1980년 5월 16일
매주 금요일 발행
(3년 주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본대생 2천여명 시국성토·가두시위

「계엄해제」「 」「 」주장

7·14·15일 2천여명 가두시위, 7·8일 철야농성

○…「비상계엄해제」와 등 현사회의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민주화를 촉구하는 본대생의 시국성토및…○
○…민주화대행진이 지난 6일부터 중간고사를 연기한 가운데 15일까지 계속되었다. 시국 성토대회 첫날인 6일 교내시위 후에 경찰과…○
○…충돌한 본대생 1천여명은 다음날인 7일 야간가두시위를 벌였고 7, 8…○
○…일 아홉간의 철야농성을 벌내고 8일 아침 7시 본대생은 일단 농성을 해산한뒤 12일 오전 11시까지 나머지 연합학생이 성…○
○…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후 총학생회는 앞으로의 학내외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학생들의 개별…○
○…적 의식화작업을 위해 15일까지 전체적인 시위는 하지않고 각 과별로 과총회를 통해 현시국에 관한 학생의 의식화작업을 실…○
○…시하며 10일 이후부터는 전국 총학생회장단 결의사항과 행동요즈를 앞주뫼로 결정했다. 그러나 14일 총학생회는 전체 총학생회…○
○…장단의 결의에 따라 전격적인 「가두시위」를 결정, 이날 오후 1시부터 경찰과 충돌했으나 오후 3시반 천여명의 학생들이 시내중심지이서…○
○…시위를 벌였다. 이어 15일에도 계속 가두시위를 벌인뒤 16일 총학생회는 일단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장국을 관망키로 결정했다. …○

본대학의 시국성토대회및 민주화대행진이 지난 6일 전 첫날인 이날 아침부터 도서관앞 광장에는 5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구호와 노래의 제창을 계속한뒤 처음으로 도서관·본관앞 광장을 돌며 민주화대행진의 제일보를 내딛었다.

10시50분경 총학생회는 시국성토대회의 개최를 알리고 총학생회장은 중간고사를 연기하고 시국성토대회를 개최하는 사유를 「현 사회정세와 시국은 학생들이 파시하고있을 만큼 민주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지성인을 자처하는 대학인 중 전민중에게 이를 알리며 소수

현시국을 바로게 유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중간고사는 5월내로 치루어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지지박수를 받았다. 도 총학생회장은 『모든 성토 및 시위는 학교내에서 평화적으로 질서있게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두시위 허용의 선례가 없으며 아무리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해도 해학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고 오후 2시15분부터 무조건 해산을 종용했으나 학생들은 계속 평화적으로 시위할수 있음을 설파하면서오후 7시.

그러나 학생대표와 경찰이 수습책을 논의하는 도중 제시된 시간이 경과하자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발언뒤

◇「비상계엄해제」등을 요구하며 교문앞에서 시위하는본학생들.

학생들은 다시 교내로 후퇴한 뒤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학생 2,500여명은 계속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교문에서 경찰과 대치.

이날 오후 4시 교수단은 학생들의 자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은 농성을 풀면 연행된 학생을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5시를 기해 일단 농성을 풀고 다음날인 7일 오전11시 재개할 것을 밝힌 일아후 연행된 손정은 (Ir·1) 군이 석방됐다.

이날 학생들은 전원 무사히 귀가했고. 경찰도 오후 7시경 대부분 철수했다.

7일 오전11시부터 재개된 연합기 시위한 2천여명은 교 관앞에서 교문으로 행진 가두진출을 기도했으나 총학생회의 제지로 교문앞에서 연좌데모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이 계속되었고 윤윤근총학생회장은 그동안 전개됐던 대학의 시위상황과 전국총학생회장단 회의내용을 공개하제 교수 일동은 정의의 실현, 자유의 수호, 진리탐구의는 대학본연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교권의 확립과 현시점의 조속한 안정된 질서회복을 촉구했다.

교수단의 결의사항은 모두 5개항으로 되어있다.

<교수결의문 : 3면>

이어 학생 2천 5백여명은 도서관앞에 재집결,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을 벌였다. 7시20분 부회장 [illegible] 총학생회에 「대한 전폭적지지를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이어 교내시위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의도이 전달되지 않을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지 않을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2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는소식에 총학생회장은 다시 시위에 들어갔지 않을 밝혔고 학생들을일제히 합성을 올리고 조를편성, 두패로 갈라져 정문과우문으로 나아갔다.

1조는 교문에서

저지됐으나후문을통해나간 학생 천여명은 다시 2조로 나뉘어 정향리와 석관동 방향으로 야간시위를 시작했다.

정향리방면으로 진출한 500여명의 학생은 안암동을 돌아 정향리 미주아파트앞에집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사복투출경찰들에 의해 진압되었고 상당수가 석관동방면에 진출한 500여 학생도 이문동 고개부근에서전경대에 포위돼 [illegible] 받은 뒤 집시동안의 연파때 모이주 해산했고 일부학생이 연행된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학생은 총 1백43명으로 밝혀졌고 이어 부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교내에서는 약5백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3층 밤샘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교수들도 2층에서 학생들과 밤을 지샜다.

8~13일 8일 7시경부터 이틀째 도서관 3층에서 계속된 철야농성은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모인 가운데 진지한자유토론에 들어갔다.

8일 학생회관 212호에서열린 과회장단 회의에서는 12일부터 시국성토대회를 재개할 것을 결의했으며 차주 시국성토대회의 진행 방안등은 총학생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일 새벽 2시부터 7시에 이르기까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과회장단과 철야농의를 한 후,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일단 농성을 풀고 해산할 것을 방표했고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여부와 관계없이 12일부터 다시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2일 총학생회가 예정대로 시국성토를 재개하지 않자 일부학생들과 과회장단은 반발, 총학생회에 시위 재개를 요구했고 총학생회는 전체 총학생회장회의 결정에 당분간 따를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상수업이 계속 진행된13일에는 오후2시부터 각 과별로 총회를 가지면서 시위방안이나 앞으로 대처방안등 소 수회 결의했으며 앞으로의 시위는 학부별 또는 과별로 실시할것을 결정했다.

이후 5시경부터 1백여명의 학생들이 교문을 사이에 두고 전경대와대치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14일 전 대학 총학생회장단회의에서 시위를 결정한 날인 이날 14일 총학생회는 그동안 의견한것은 연행학생을 구출하기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날부터의 가두시위 시작을 공고했다.

이날 2천여명의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전경대와 대치했고나 전경대가

계속지지했다.

이전에 학천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쪽담을 넘어 교외로 진출했고 본대에 있던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일지에 산병에 의해 학교밖으로 나가 시내 동대문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경 7백여명의학생들은 「계엄해제」 등을 외치면서 시위방향의 [illegible] 총학생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일 새벽 2시부터 7시에 이르기까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과회장단과 철야농의를 한 후,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일단 농성을 풀고 해산할 것을 방표했고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여부와 관계없이 12일부터 다시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5일 예정대한 본대생 2천여명은 바퀴생들과 합류 시국성토에 집결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학생들은 남학문에서 전경대와 대치, 투석전을 벌이다 저녁 8시인경 시점앞에서 해산식을 가진 뒤 해산했고 일부 학생은 학교에 돌아와 해산했다.

지식인은 이념적이어야 하고 그것은 확고한 가치판단과 함께 의식화(意識化)되어야 한다. 그 할 식을 지닌이에게 등치(等値) 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 우리의 순수함만으로도 다소의 위험성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문동초점

본대생 3명, 연행 143명중 훈방 126명, 즉심 14명

지난 7일의 야간 가두시위에서 연행된 143명의 본대생중 3명이 에 송치됐다.

이들 3명은 장석규(S과 3년) 최무순(E과 3년) 이일군(W) 군으로 밝혀졌다.

이날 연행된 143명의 학생중 126명은 8일 밤 서약서에 서명한 뒤 훈방되었으며 14명은 12일의 즉심에 회부되어 7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7일간 구류되어 있었으므로 모두 석방되었다.

또 6일의 가두진출에서 크게 부상한 학생은 홍일표상(J과 3년) 으로 밝혀졌는데 팔상은 소탄폭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의 가두시위에서도 연행된 학생이 있었으나 다음날 전원 석방되었으로밝혀졌다.

알 림

본 외대학보는 당초 중간고사관계로 휴간할 예정이었으나 중간고사 무기연기와 학원사태로 인해 **특보(特報)**를 발간합니다.

교수단, 시국선언문 채택

비상계엄해제, 민주화실현 촉구

지난 7일 오후 5시경 본대학 교수단 일동은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계엄령의 조속한 해제」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보다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고 성실한 납세를 하며 기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성실히 되돌린다.」

이러한 柳韓의 기업정신은 이 땅에 건강을 심고, 가꾸고, 뿌리를 내리려는 의지의 집약이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정신입니다.

한 알의 약, 한 앰플의 주사에도 온갖 정성을 다해 좋은 의약품을 생산함으로써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성실한 납세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인정과 의리, 그리고 정의가 지배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柳韓이 사회를 위해 되돌리고 있는 기업이윤의 41%는 각종 교육기관, 공익단체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기술교육에, 질병으로 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의학교육에, 두뇌는 우수하나 학자금이 없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교육에 값지게 쓰여지고 있읍니다.

폭력에 관한 일고(一考)

▲「폭력(暴力)을 물리치 「행동제일주 없는가」 최근 사북·동국제강·학원동에서 벌어진 일련의폭력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든은 그 사실을 통하여 「폭력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했다. 「타협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폭력으로해결하려는것은 어떠함 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으며 미더구나운동일 수도 없는 일이다. 그 견해를밝혔다. 이러한 관점이 전권한 상식의 선(線)에서 이해될 때 우리는 그 타당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기정화라는 현실적 의미가지 부여하고있다.

▲「민주주의」란 쟈끌한 타협과 중재의 산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방적 타협과 중재 아래서 약자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의사를 표출치 못하고 억압적 자유에 서 압주 (强圧) 하고 있지 아니한가. 「민약 자기의 의견을 들어 줄 합법적 수단이 거절 당할 때 국민은 폭력에 호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A·모로아) 사북의 한 광부의 예기다.

한국적 상황에서 폭력과 비폭력의 관계는 프수성보다 가중되서도 변증법적 기인리 노미아」(이율배반)의 폭일이 전제될 필요가있다.

비폭력의 예수만지도 죽을 이다가오자 「길옷을 펼아서라도 걸(掛)을 준비 하다」고 했다. 입장권을 팔아 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방 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만폭력으로 기울때 사람들이 한폭력으로 기울면 반드시 그에는 전복(顚覆) 필고아 만다」이러한 관념한 사고(思考)는 나부로 부비판이고 무정의한 설폭으로가지 들린다. 가령 「자전차」가 한폭으로 기울려 [illegible] 우리는 [illegible] 기울인다 해도 그 「자전차」는 [illegible] 「도한 정복성적 할는가. 세 실폭으로 말하자면 세(車)의 전부분이 한폭으로 기울때는 우리의 몸도 같은 폭으로 기울어야만 올바른 평형(衡平)이 유지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자전차의 전체가 같은폭으로 기울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마지막 남게될 나사 하나의 반동(反動) 이 연쇄가는 나라 나라라 밝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의 전향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전의 「스휴연 프 파워」를 보여야하기 위해서 [illegible] 남지 요구하는 것으로 (足) 하다」 가장 결정적인 내일, 행동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비겁자가 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주의 이어 [illegible] 면은 「폭력」과 「평등」이 전평되지 않고서도 [illegible] 「중재」가 이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양의 [illegible] 이다. 그래서 다시는 역사의 [illegible] 상을 방지하는 [illegible] 유로서의 우리학생이 「공부하기 쉽어지는」 [illegible] 유으로 배도되어서는안되겠다는바람뿐이다. <김형민>

이 땅에 건강을 심고 가꾸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柳韓洋行의 사명은 이 땅에 건강을 심고, 건강을 가꾸고, 그래서 건강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柳韓洋行의 이상은 「건강」에 있읍니다.

이제 대망의 80년대를 열면서 柳韓은 이미 지난해 국내 최초의 GMP 우수의약품 제조지침에 의거한 국내 최대규모의 제약공장을 안양에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함으로써 80년대에도 선도 제약기업으로서의 부끄럼없는 전진을 계속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柳韓은 가장 우수한 시설에서, 가장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서 나아가겠읍니다.

이러한 柳韓의 신념과 노력은 80년대에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땅에 건강을 심고, 가꾸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柳韓洋行 株式会社

사설

과도 정부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라

—다시 민주화를 위한 인내와 용기를 다짐때—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의대인의 민주화투쟁의 전개는 대학과 사회의 거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신 정권이 붕괴된 지금에 와서도 유보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혜련을 이땅에 굳게 다지려 거대한 민족적 열망을 현시하며 실현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증정 (覆情) 이었다.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의 (大義) 명분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에인각한 국가의 안보라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두 명제는 항시 기본적 평형전제를 유지해야 한다.

유신독재가 종언 (終焉) 을 고한 이 마당에다시 민주의식가 결식당할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적 요청이다. 하지만 모든 상처인은 첫의 피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당위 (當爲) 의 소리가 새 벽져 나오기도전에 우리는 처음부터 「국가의 결멸력인 안정을위해 불가피 했다」는 정부당국의 비상계엄선포 감수해야만 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열망이 끄즈되면서 과도정부는 스스로 「정치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일건 국가의 장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심어주었으나 ,최규하대통령에 의한 「위기관리정부」라는 명칭은 정부의 최국적인 안정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결국 10·26이전의 유신체제하에서나 과도정부수립 이후의 사회체제에서나 공히 「안정」과 「민주화」라는 두가지 명분이 내세워 질 수 밖에 없게 된 결과가 피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붕괴 전 (前) 이나 후의상황이 명백히 다른 것은 국가의 「민주화」를 만드시 이룩해야 하며 국가사회의 「안정」을 위한 안정의 선에서만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국민적 열망으로 집약되어 면복과 (顚在化) 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의 발판을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과도정부는 당초와 달리 정치일정에 대한 이렇게 정국 다 할 해명도 없이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대학인은 이에 선구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분연히 시국을 성토하며 평화적인 교내시위를 거행하였다.

본래생의 시위 역시 이에 궤를 같이하여 출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지금에와서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계엄해제등 박상철의 이성적이고 정당한 요구에대해 내인 (黃任) 을 지나 방관적인 불성실을 지속하며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불신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태도였다.

금기아 대학인은 그에 대한 우려를 평화적인 가투시위라는 최후적 수단에 의해 표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망 그렇듯이 수많은 학생들이최루 경찰의 저지에 의해 을 당해야 했다.

지켜보는 시민이나 이를 저지하는 정부측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듣가 「연보에 위협이 있다」 등과 「무법도 벌어놓기 전에 성급한 관련을 한다」 는 등의 이유로 우려와 유감을 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개인일정이 2~3개월단축되고 여야를 싸른한 개헌해제와 정치일정단축 특구의 소멸이 불성화되며, 개최시기에 논란을일어오면 임시국회가 20일에 소집되게 된 것이 단지 학생을 밭테는 정부측의 어떨 수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있겠는가. 정부는 대학생이 정치 이 나라의 진정이 필 사람임을 안타깝게 평화적인 교내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어째서 정국에 대한 해명 한 번 없었는가. 이는 그러고 불성실한 정치발전 추진자인의 만용이며, 무지한 학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태도 역시 그 정당성 조차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유감된 일인 것이다.

국민과 정부, 정치인은 학생들의 순수하고 애국적인 뜻에 진정한 신뢰와 이해의 귀를 열어야나라의 민주화 실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며 평화적 시위를 수행하였다. 이 시점에서 일단 우리의 태도를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학생운동은시국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서 출발함으로써 그가치를 발할 수 있다. 애초부터 국민은 전술한 「안정」과 「민주화」 라는 두 명분인의 진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대학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이 아닌 허위의사적인 「안정」의명분에 「민주화」 라는 대의가 저해되지 않고 이루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대학인 스스로 「유신」의 산물인 부패는리라 전제주의적 사고방 행동양식을 먼저 척결하는 민주화인 자세와 결의한 상황인에 기초한 실천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허위적인 안정의식을 필쳐로 한 유신잔재의 청소를먼저하고 국민적 지지의 발판을 다지면 그것을거치 대한 사회의식으로 솔직서게 국민적 단합의 묵묵히 거기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라, 자제에 대학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자성에 놓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문을 넘겨의 계층시 (眼) 하여, 아직도 의식을 잠재우고 있는지 인간을 내려보는이 민중을 위하고 선도한다는 것밖없는 것뿐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민중과 함께 하는 거기를 바라던서 정작 민중과는 유리된 채 정국 뒤안에 도사린 「저의」 에 도다시 「안정」을 구실로 우리의 민주의지를 뭐을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성립한 시국선에 의해 진정한 자제와 자성을 할 를 잃고 그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요 현명함이 필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일단 학업으로 돌아올 때이다. 우리의 의지표현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민주의지에의국민의 단합을 이룰고 성숙된 민주화의 여명을 성취하기 위한 용기를 가다듬어야 한다.

본보 특별 시론(時論)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위하여

시국을 보는눈

—총학생회의 진상을 선명히 한 대학인의 의지가 불투명한 정국과 그 뒤안의 우려되는 「치의(恥意)」를 규탄하고 나섰다.

거절할 치하에도 불구하고 학원내외의 자율권은 「유신」 치하에 비해 전망지차로 보장되고 있는 듯 했다. 명백히 정치된 상황아래 놓여있으면서 어느 사이에 그 상황에 대한 긴장된 의식은 매스컴을 필두로 하여 「민주화」 와 「자율화」 그리고 「순리(順理)」 등의 바람직한 구호를 유용하면서 들어서고 있는는 김조차 들었다.

거업치하의 학원자율이란 불구적인 것임을 입증부터 인식하고있는 대학인의 의지는 개혁에의집약점을 찾아 분출되었다.

경찰의 파민반응과 서글픈 몸들로 시작하여 이미 수많은 대학인의 희생이 발언했다.

이에서의 민주 정치에 대한 이성적인 비판이 지극히 희의적인 기능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4·19이래 부·마사태에 이르기까지 독재자의 말로가 증분히 철밥침해 주고 있다. 「폭력의 결학」이라는 말이 반양말는 이들의 자구책으로 필 수 밖에도 없었던 생존 인정못한 이유가 증명할 정도이다.

분화에 대한 투쟁이나방거는 항시 가치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미 합법을 회생의 역사에 첨 설되었고 그것은 이제 과거로 갈나 다시는 재연(再演)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대없이 간절하다. 희생자의 피흘림이 항거를 위한 항거가 아니었음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이는 말이다.

그런 인식의 발판 위에서 지금의 시국을 바라보는 눈은 절박해진 낙관과 비관의 양 극단에서 착잡해지고 있다.

여기가 국가 사회와 대학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결로의 시기로, 편협으로 빠는 반금 정치적인 면에서의 밖 민주적 해동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의 명분(大義名分)의 승리를 위하여

절대복인 비판과 낙관—이라고 얘기됐지만 실상은 필한 저의」의 자신 소멸은 전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오늘 양심의 고수와 민중의 전위를 의식하여 자심의 회생을 각오하고 행동하는 지성들은 다시한번 주위에의 의명분으로 모아지며 거세게 분바람을최측하고있다.

그것을 과연 대의명분(大義名分) 으로 표현되기만지 이에 거스르는 어떠한 의도도 반민족이라는 낙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명분」이 오늘에이 비로소 생겨난 것이냐. 그것은 유신체제하에서도 암암리 이 부르짖어졌었던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이며 정치 역시 그렇에 있어 다를바 없다.

과도정부는 스스로 「위기관리정부」임을 표방하며발전을 위한 「안정」을 내세워 나서 자에 놓 있어야.

그러나 이 것의 지적이 진정 존재한다면 이미 틀려 보모하게 확장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현재하게부터의 우려를 필멸케오도들 아낳을 가능성조차 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진정 우리를 필멸케오도 밀어 놓이는 것이 이 불순함 제의 불일치인지 다시 생각하야 한다.

우리는 원박하리라 보모한 계획과 행동 일수있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의 행동을 부채임한 것으로 자초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가키스로 「안정」이라는 명분뿐지않은 위치에오른 「민주화」 라는 대의 명분의 지위를 스스로 부숴트리며 푸 명분의 평명유지조차 스스로 어그러트리는 꼴짓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중정 (覆情) 을 앞에 내세우며

밑고 밑리는 대학인의 절박한 의지가지금 이제 한타카운 이 나라 역사앞인의 원동력이필 수 있겠는가. 「명철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과연 국가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대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는가. 대학인 상호간 선동과 폐쇄의 일방적 편견에 사로 잡혀 도다른 시국관과 양심퀴인 가치관만을 「비난」과 「비양심」으로 몰아붙여 대학인의 역사의식을 부채임한명 물으로 화하게 하는 결과를 빚지나 않는가.

부풀 이나 대학은 역사와 사회에 절대케인 책임을 앞 어깨에 걸머시고 걸어왔다.

이 시점에서 대학인의지상 파제는 대학인 스스로의 쉽게한 사학편의성향 그리고 공인적 지지와 흐름에 밝은 지적, 그리고나서 국민적인 단합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저의를 분쇄하는 장 (場) 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함 명명백백정이 「밑주체요로」 진행되고 있는동안 세계의 눈도 이나라의 「안정」에 대한 이기적인 자기이해에서 각성할수 있게 될 것이다.

필은 대학인의 가슴은뜨건데, 세상과 드거처져야한 다. 세상 바라건데 우리의 학생운동은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민주화」는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국민적 대의(大義)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안정」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명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시국이었다. 우리의 희생이 「안정」의 명분을 잡아 「민주화」를 지키는 구실을 준다면 그건 비극이다.

◇지난 6일 본교생시위광경.

(서울지역 문화위 : ☎ 22-7987, 446-3914, 28-9941, 877-3670, 966-1964.

시국선언문

대학은 한 사회의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최초 그리고 최후의 보루였다. 항상 그 민족과 국가의 현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했던 대학인들은 사회가 냄새고 고통을 받을때 가장 민감하게 대처했다. 이순만 독재정권에 유린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학인들이 이른 법학인께 민주혁명인 4.19와 그 정신을 이어받아 19년간의 박정희 군사정권과 그 일당기구에를 찾아놓아 없었던 신체제를 무너트린 작년 10월 부마 민중봉기는 대학인의 적극적 참여가 가져온 역사적 필연이다.

대학의 이런 역사적 선봉에 비추어볼때 현재 우리의 당면과제인 민주화의 실현과정에 있어서 마땅히 대학은 방관적 정장에서보어나 역사인권에 눈동화으로 참여함으로써 범 국민적인 민주화의 효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이 의무이자 참되게 지성인의 지시가 아니는가?

첫째, 존재근거를 상실한 비상계엄을 고집하는 것은 박정희의 잔재세력들이 또다른 반민주적 체제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음험한기도이다.

둘째, 구체제의 비호 아래 복권을 누려온 일부 유신당당들의 개헌주도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을 억압하려는 반동적 아욕의 발로이다.

셋째, 경제 성장에라는 미명아래 유신체제가 정략적으로 육성한 재벌, 재벌의 노동자 착취, 최근의 시국반항 광부들의 생존권 투쟁 그리고 등국제장의 노동자 시위를 비롯한 많은 노동투쟁과 수출주도형의 대외의존적 종속 경제하에서 피생 농촌의 피폐한 상황 등은 해방 이래 누적되고 심화된 민주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혈여하게 드러내고 있다.

넷째, 12·12군부 쿠데타와 그들에에 근립해온 배관재벌들은 기업과 재산을 끊개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다섯째, 인톤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지양하고 유신잔재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각성하여 민주화 대열의 선두에 서라.

여섯째, 12. 12 군부쿠데타의 진상을 국민앞에 즉각 공개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결의는 앞서 밝힌 대학인 본연의 자세를 재확인하고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자율적인 노력이며, 역사상 소구하는 법학인께 민주화운동에 부응하려는태도임을 재천명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외부 불순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좌절될 경우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민족의 이름 앞에 결연히 선언한다.

1980. 5. 6

한국의국어대학 총학생회

미담 美談

▲주련 (周璉) 씨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대학가의 시위 (示威) 가 세차게 타올랐을 때이다. 시국정세에 입년을 표하는 한 학생에게 누가 전단하여 한부하였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어 그보다 이제 필요가 있느냐는 그자신의 견해를 피보였던 게다. 이로써 어떠한 의미를, 성과를 드러낼 것이며 어디에서부터 그 희생의 빛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러자고 협력한 (熱烈) 하는 『어도학생이 나가』고 일갈 (一喝) 하였다고 한다. 이에지지않고 저지하려 나섰던 그도 대거리를 하였다. 『너만학생이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 직후 드골은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하는 정부는 바로 어제 우리가 무너트린 「나찌」와 같은 독재의 파신(化身) 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그에 이르는 역정 (歷程) 이 아무리 험난하다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도한 민주적인 것이지 않으면 우리의 쇼망스인 목표는 바로 그때문에 여지없이 해손된뿐이다.』 목표가 합법되는 것 혹은 파괴되고 마는지의 문제는 뒤어도 그에게는 별개의 것일 수밖에없다. 나찌당의 처결한 만약을 얻그제까지 지었삶 그의 인에서 나온 이말은 배우 심장 (深長) 하다.

▲

자제 (自制) 의 정부는 물론이고 단순히 기질 (氣質) 상의 이유만으로 은건을 지향하는 것조차도 폭발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의 보편화된 현상의 답례인 보기 (모대학 신문 사설) 라는 큰보 (寸報) 의 양보없는 타격 (斷罪) 가 내려지는 작금의 주세에서, 이와 같은 제기 (?) 를 부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던 「만용 (蠻勇) 」에 불과할지도 모르게 된 명백한 것이다.

욱이 벼려 톱날이 일려나온다고 해서 그것이전체의 흐름이나 삶이 흔려가야 한다는 논리연습 복잡수 없는 노릇이다.

▲행동하자 않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다. 그것은용은 얘기다. 그러나 그 행동은 그의 지성으로부터 무수한 내면의 자력갈을 거친 끝에 외식의 표면 골라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미루다간 그 언제도 행동할 시기가 아니지 않는가. 4·19그때가 그야말로 역시 (適時) 여서 감행되었는가?』 (K대 신보간) 의 반론도 있는 바로 그때문에 여지없이 해손된뿐이다. 『목표가 합법되는 것 혹은 파괴되고 마는지의 문제는 뒤어도 그에게는 별개의 것일 수밖에없다. 나찌당의 처결한 만약을 얻그제까지 지었삶 그의 인에서 나온 이말은 배우 심장 (深長) 하다.』

무제 (無題)

니것 잡에 속의 혈갈 곡기의 이해관계속에서 한편 한 자주 (自主) 를 구가하기어려웠음을 운위 (云謂) 하는것은 오히려 새삼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뜻에서 10·26과12·12사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희욕은 추상적인 보는 세계관 눈에주목하여 시국을 관찰하는거 사력 안목이 필요하다.

국제기류에 대한 관단 역시 필연고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유신독재장권의 붕괴를시작 이래 이해관계속에서 한편 이를 보는 세계관 눈에주목하여 시국을 관찰하는거 사력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일단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것은 명분이기 때문이다. 『명분』 긴장은 이미 겨울부터 시작된 것이다.

며부기 우리는 정국뒤안의 「저의」 가 거의 투기 (投機 Speculation)뿌이기 조작한 명동양식을 포모하게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고있다.

현 상황은 20년전 4.19 당시와 방법적인 면에서의 양상이 다르다. 당시와 같이 전민중에게 의식화되을 불일수 있는 「민주화」를 지향한 국민적 자원의 「이슈」가 아직 비상시국의 「안정」이라는 명제를 압도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면에의 주즉세력이라고 할 수있는 중산층이 「안정」속의 일인이라는.

제 미련 놓일의 희생은동을 분석한 것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즉 「선동—지국의 정식을에 하는 데모는 그로 인해 국가 반격을 산출하게 되고 저항이 폭파하는 독특한자 기법속은 저항 그 자체를 법률—독특형위라는 정당의 구준으로부터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다.

명동하는 지성의 비타협적인 의식은 동일 주상적인 순수성 속에 구현되며 지적 합물의 위험까지 안고있다.

이 시대 대학인의 우선적인 책무는 대학의 안팎에서 서서히 확대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가 결합될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부력(武力)을 부력(無力)한 이성으로 이기려는 인내가 진정한 용기일수 있다. 국민적 단합의 「확증」적 계기를 위해 교내에서의 건설없는 토론과 시국정표는 계속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 나라 민주화의 절대적인 결말이에 관한 관단과 오관에의해 빚어질 경우 그책임은 전적으로 이 시대 대학인이 져야한다.

따지고보면 절대적인 비관과 낙관이라는 두 국단적인 견해는 현초적으로 「저의」의 주체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만 벗무나 선험한 몇가지 표지에 합쳐되어 대학인 동료부터 유리되면서부터 이단.

그러나 이 저의가 진정 존재한다면 이미 틀려 보모하게 확장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현재하게부터의 우려를 필멸케오도들 아낳을 가능성조차 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진정 우리를 필멸케오도 밀어 놓이는 것이 이 불순함 제의 불일치인지 다시 생각하야 한다.

우리는 원박하리라 보모한 계획과 행동 일수있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의 행동을 부채임한 것으로 자초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가키스로 「안정」이라는 명분뿐지않은 위치에오른 「민주화」 라는 대의 명분의 지위를 스스로 부숴트리며 푸 명분의 평명유지조차 스스로 어그러트리는 꼴짓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중정 (覆情) 을 앞에 내세우며

밑고 밑리는 대학인의 절박한 의지가지금 이제 한타카운 이 나라 역사앞인의 원동력이필 수 있겠는가. 「명철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과연 국가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대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는가. 대학인 상호간 선동과 폐쇄의 일방적 편견에 사로 잡혀 도다른 시국관과 양심퀴인 가치관만을 「비난」과 「비양심」으로 몰아붙여 대학인의 역사의식을 부채임한명 물으로 화하게 하는 결과를 빚지나 않는가.

부풀 이나 대학은 역사와 사회에 절대케인 책임을 앞 어깨에 걸머시고 걸어왔다.

이 시점에서 대학인의지상 파제는 대학인 스스로의 쉽게한 사학편의성향 그리고 공인적 지지와 흐름에 밝은 지적, 그리고나서 국민적인 단합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저의를 분쇄하는 장 (場) 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함 명명백백정이 「밑주체요로」 진행되고 있는동안 세계의 눈도 이나라의 「안정」에 대한 이기적인 자기이해에서 각성할수 있게 될 것이다.

필은 대학인의 가슴은뜨건데, 세상과 드거처져야한다. 세상 바라건데 우리의학생운동은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시국은 「국민의 논파」 귀를 흔드는는 반민주적 저의가 「오히려 발표할 수 있는 어지조차 열어지고 있지나않나하는 우려를 거들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반민주적 「저의」도 용인할 수 없다. 그러함 우리의뜻은 낮업회 민중운동을 유도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와 낮 밑동에서 출발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인내가 진정한용기가 필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곽해선 기자>

ROCKY II

●1980年은 "록키2"의 해●

●現代의 "히로"가 된 록키!
사랑의 힘으로 모든 青春을 되찾은 록키!

■ 록키가 돌아왔다!!
現代아메리카가 낳은 슈퍼-스타!

SYIVESTER STAIIONE

사랑때문에, 青春때문에, 가정때문에,
이러저 때문, 록키! 는 빈곤의 大一膜에 모든 걸음을 건다!

■監督 脚本 主演 실베스타스탈론

■MGM의 타이틀 시이어 버트 영 합·위저스 버넷스·헤레티스
■제작 로버트 치로드 이한 한과라졸릿 일준다졸릿일 일 버트라

록키2

●록키가 全世界女性의 우상이 되었다!!
●아카데미賞을 휩쓸린 制作록키에 이어 또다시 제작하여 世界의 最高의 興取를 記錄한 록키2.!!

●20年前 「빈센 以後 한국최대의 극장에서 최고의 興取■ 試圖한 록키2.!

■大로드쇼迫頭!

대한

United Artists

국제대학생 합숙 수련회 안내
INTERNATIONAL STUDENTS CONFERENCE

생명의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80년대 세계대학가에 역사적 차원의 최대행사가 될 국제대학생수련회는 세계대학인들 간의 친교,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대잔치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새생명 예수 영접의 기쁨을……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의 비결을……

5일간의 합숙수련회, 예수대학에 입학하여 인생 최대최고의 수업을 쌓읍시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반드시 한번은 건너야 할 친척 지성의 강 예수의 강에 신, 불신 (信, 不信) 을 불문하고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당신의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값있고 멋있는 일생에 단 한번 밖에 없을 국제대학생수련회에서 올 여름방학을 뜻있게 보냅시다.

낮에는 세계 최고의석학들의 수준높은 강의와 세계대학인들 간의 친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밤에는 성령의 용광로 같은 2백만이상 성도의 열기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잔치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 간 : 1980·8·11~16(5박6일)
장 소 :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및 인근건물
참가비 : 8,000원 (합숙비 교재비 포함)
※ 기타 자세한 것은 전국 각지구 C.C.C 회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 문의처 : ☎ 22-7987, 446-3914, 28-9941, 877-3670, 966-1964.

주최 : '80세계복음화대성회 대학생복음화분과위원회

月刊 朝鮮 6

값 1,500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暴君을 제거하고 낡은 제제를 淸算해야 한다 在頭言에서

全國一斉發賣

主題가 있는 散文…세월

趙斗南/金甲順/趙必大/李珪鎬/朴槿子/南宮燃/崔白山

血痕 元老文人의 回顧錄 李範宣

그날의 行方 中篇 金容誠

詩
헛된 동자 …… 李炯基
모다리자 斷想 …… 許萬夏
海賊船 …… 金鍾海
메마른 언덕 …… 慎達子

朝鮮論壇
政治 이데올로기와 言樂
政治발전과 覇典
빈다간 假似主義
입으로 사는 사람들
基本方位와 反省
이름쓰기
학원의 자율화운동
이만열
金容達
李在鎭
趙韓序
박동수
裏昌秀
魚允子

轉換期와 知識人

新志操論	金成植
知識人과 지성인의 차이	李建鎬
知識人과 轉換의 논리	李相信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反抗	李仁浩
日帝下의 知識人變節	林鍾國
黑白 (二分法) 論理는 없어져야 한다. (大討論)	李明賢 오세철 李敏鎬

不透明時代에 透明한 解答은 없는가…最典問題
韓國經濟開發政策 대폭 修正돼야한다
邊衡尹

「3金」의 모든것

金大中 朴實 / 金泳三 金明珪 / 金鍾泌 朱燉植

一線記者들이 본 그들의 어제 오늘 200자 원고지 총350장의 人物論

現代를 움직이는 思想…哲學
新實證主義의 發展과정 李漢龜

韓國音樂 어디까지 왔나
西獨의 젊은 作曲家들 李建鎬

一大學街현지—
教授가 학생에게 金泰吉
學生이 교수에게 李庚玉

特輯
指導者…그는 누구인가
指導者는 国民의 비판을 통해 政治를 발전시켜야한다 (對談) 宋復·安清市

民主化와 리더십論…… 車基壁
民主的 指導力…… 金桂洙
獨裁者의 獨裁心理…… 李東植
韓國政治指導者의 어제와 오늘…… 金學俊
政治參謀論…… 安秉永
다시 쓰는 博士論文 反君主論序說…… 金浩鎭
世界指導者의 登場과 退場 〈整理〉 金潤坤

韓國人의 목소리③ 겨레앞에 미리쓰는 遺言狀·權重輝
우리 國民의 참을성 어디에다 버리고 조급한가

第4回('80年度)研究開發支援要綱公告

本 峨山社會福祉事業財団은 '79事業年度에 이어 本財団 支援事業의 一環으로 '80事業年度 研究 支援事業을 施行하고자 그 要綱을 아래와 같이 公告합니다.

目 的	学術研究開発에 従事하고 있는 人材에 対하여 그 研究活動을 支援함으로써 学問과 技術의 向上을 図謀하고 나아가 国家発展에 이바지하고자 함.
申請資格	正規 大学(院)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関 또는 研究課題를 担当하는데 必要한 組織과 施設을 具備한 研究機関에서 専任講師 以上 또는 이에 準하는 資格을 갖춘 研究職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在職 経歴이 있는 者로서 ① 該当分野의 研究에 3年以上 従事하고 있을것. ② 最近 3年 동안에 該当分野에 関한 著書 또는 論文이 있거나 이에 準하는 学術的 実績이 있을것
申請要件	위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① 本 財団이 支援하는 研究期間中에 所属機関의 職員으로서의 通常的인 勤務義務以外에 他의 研究課題의 研究에 二重으로 参與하지 않을것. ② 最近 3年 동안에 本 財団의 研究費 또는 他 研究費 受領者로서 特定課題의 研究義務를 負担하고 그 義務를 誠実히 履行하지 못한 事実이 없을것.
申請節次	所属機関長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2人 以上의 共同研究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研究支援申請은 全員 共同名義로 하여야 하며 共同研究者의 所属이 다른 경우에는 各各 그 所属機関長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申請書類 및 要綱配付	① 正規大学(院)및 이에 準하는 教育機関 : 機関의 長에게 一括하여 郵送하 個別配付는 하지 않는다. ② 其他研究機関 : 研究機関의 長이 一括的으로 配付要請을 하여야 한다.
申請書類提出	所属機関의 長을 通하여 本 財団에 一括提出한다.
期間 및 場所	① 書類配付期間 : 1980. 5. 13~1980. 5. 15(3日間) ② 書類接受期間 : 1980. 5. 22~1980. 5. 24(3日間) ③ 配付및接受処 : ㉮ 直 接 : 서울特別市 鐘路区 世宗路 178番地(現代建設빌딩 6層) 財団法人 峨山社会福祉事業財団 事務局 ㉯ 郵便接受 : 서울 光化門 郵選局 私書函 1600号
支援予定規模	3億원
其他事項	① 提出된 書類는 一切 返還하지 않는다. ② 其他 詳細한 内容은 本 財団에 問議바람. (電話 : ㉮ 1832)

1980. 5

財団法人 峨山社会福祉事業財団
理事長 鄭周永

걸은 우리 앞에 있다
70년대 초 먹구름에 덮이던 우리 하늘이 쏟아지더니 그 폭풍에 말려 산골짜기 바위들에 처박혀 있었던 바로 그 책!!
A5신판/318면/값2,000원
金東吉
汎文社
마포구 신수동 445-5 (34)2121·(35)5151

오늘의思想新書 13
제3세계와 종속이론
염홍철 편저
종속모델과 확산모델·칠코테/저발전의 이론과 역사·그리핀/저발전의 발전·프랭크/종속의 유형과 분배의 격차·필벡/제국주의의 제3세계의 경제발전·웨이스코프/다국적기업과 제3세계의 저발전·물리/내적 식민주의·쉴프/발전분석에 종속이론은 유용한가·볼/종속이론등의 비판적 이해·스미스
(크라운판 368면·값 3,200원)
한길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의 23 전화 75-4297 대체구좌 54150

오늘의思想新書 12
車基壁著
民主主義의 理念과 歷史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주요 내용●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이념과 그 전개/민주주의의 제도와 실제/자유와 통제/민주주의의 토착화/선성공기의 민주주의/정치인의가치관/권력·자유·정의/교경으로부터의 자유와 책임/종속적 신경실시/자본주의 정신의 대두/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책임/절대주의 국가의 확립/시민혁명·자유방임주의·개량주의/국가에 의한 자유와 책임/부르조아민주주의 확립/복지국가론/한국에서의 자유와 책임/주권의 상실과 민족적 자유의 추구/유럽식자유민주주의의 이식/자유민주주의의 정치화 저해요인/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추진/국가에 의한 자유의 추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크라운판 264면·값 2,700원)
한길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의 23 전화 73-4297 대체구좌 341368

군·지원 행정병 안내 대
서예
특별 차·분·표·표 기술터 협
전형지도
한국서예학회 부속서예학원
인성서예학원
(구)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771 ㉯5346

희망찬 새봄과 함께 새롭게 갖추세요.
신세계 학생복 매장·특설 3층
●학생벨트 지갑판매
●모표 단추 세트판매
●남녀학생복(T/R에리트복지)
●학생모자(울혼방 최고급품질)
※유명메이커 학생가방 전시판매
●학용품 할인선물부 특매〈4층〉
(할인과 동시 ₩5,000이상 구매시 예쁜수첩 증정)
●앨범 20% ●노트 15% ●연필 10%
●만년필, 연필깎기, 기타문구류 5%
※남녀 학생화코너 신설〈1층〉
新世界

MBC 英語 방송교재 Welcome to ENGLISH
文化放送 全国 동시방송 AM 아침 : 5:50~6:00 FM 아침 : 6:00~6:10 / 時事英語社
교재는 서점에서 발매중! (776) 7671~5
카셋트 배달 주문은 (776) 6509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福祉社会—우리 모두의 所望입니다
重工業 발전으로
福祉社会 건설,
그것은 우리의 信念입니다.
現代는 国内外에서
誠実하게 땀흘리며
우리 모두의 所望을
하나씩 実現해 나가고 있읍니다.
峨山財団은 学問의 발전과 技術의 개발을 위해 전국의 大学과 研究機関에서 学問研究에 종사하고 있는 学者들을 대상으로 매년 研究活動費를 支援하고 있다.
現代

진실을 생각하며

석 기 철

우리 젊은 학도들이여! 뭡가를 깊이 생각해 봤는가? 시들어가는 무궁화꽃, 뼈 뿐은 하얀 소복…눈에 와 닿는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가? 어느 한 사물을 깊게, 그리고 곰곰히 골뚜해 볼수 있는 우리가 아닌가. 이조국 이 강토에는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기가 여기 저기 숨겨져 있다네. 지금 리들이다. 그때서 젊은이는 폐기가 있고 것뜻하다고 말을 하나보다. 하지만 우선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더 깊은 사고를 심부시키는 것이 무슨 일이건 커다란 후퇴를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대학인의 지성은 분명히 이를 허락해 줄것으로 믿는다. 우리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기에 저연을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개개인의 사고력은 다르긴 하지만 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사건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기어 렵다. 사고력은 후천적인 경험의 소산으로 보고싶다.

박상 자기 앞에 크나 큰 불행이 와닿았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든 일시적으로 그 불행을 모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킨다. 물론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기에 또 다른 많은 피해가 따를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불행이 와 닿기전에 한번쯤 사전에 눈여겨 보았어야 옳았을 것이다.

여기서 불행이란 인간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평범한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소수인에게 올수도 있는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곰곰히 생각을 한후에 행동으로 옮겨줄때와 그냥 순간적인 자아의식으로 또는 부화뇌동적으로 한행동과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음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또한 불행이 아닐수 없다. 우리 대학인은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하나하나에 대, 도 피해야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일을 이루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쯤 생각할 시간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수인의 의향과 합치될때 과감히 행동으로 옮길수 있어야 한다. 이때는 주저할 것이 없다. 오늘날 세계는 또다른 큰 변화를 직면해 가고 있다. 우리나 만도 예외는 아닌것같다. 이 시기에 대학인의 자세를 재고해야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

<이란여과·1>

마음의 창문을 열 때

이 상 학

한 푸배 하는밤, 「형, 돈 좀 줘 줘. 술을 마셔야 죄겠어요」 「술 먹을때가 아니잖아」 「에이 죄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푸배하고 같이 술 마시며 얘기 좀 합시다. 」 「그럼, 자, 」 「도대체, 형 희도는 뭐예요?」 「나는 막막 시위는 잔잔하지만, 보이시위는 반대한다. 아직은 사태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본다」 「에이, 저는 형 연설하실때 그렇게 안봤는데요. 」 (주, 필자는 2회의 자유로운 토론 (뒷줄) 다른 푸배가 옆에서. 「형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아주 불만이에요. 저기 보세요. 경제학과 사람들은 뭡가를보여주고있잖아요. 」 —이상은 일전에 푸배와 나는 이야기이다.

우리 학생들이 요사이부로부고 있는 「이슈」 중의하나가 「나빈이 을다」 「내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을버리자이다. 그런데 우리의 18년간에 갖가지 떠한 는 에비치기를, 이제는 모두가 떠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단자로 보혀하고 이용학생으로 떠도하는 일은 없는지. 바로 우리 자신이지금 떠혀하고 있는 「나빈이 을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빠져 들어가고있는 모습은 없는지.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이다. 모든 개체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이를 용수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조화도 결여해선 조화가아니라 상대적인 조화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서 잡아 가두고 고문하면 제거가 지금 피를이뿌고 있지는 않는지.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우선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자기와 다른 의견을 말하려 따도 그것을 공가지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실정이다.

예로가. 부방하다는 의견을 말하면, 떼모에 가담하지 않으면 「이용학생이다」가 아니란 「이용학생모를 된다」는 상황때문에 마지못해 떼모에 가담하고 떼모지지 발언을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면 친구들에게 소외될까봐 그냥 따라다니고 참석하는 「레파밍지기경」은 없는지.

또한 고대 자유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 그 내용 자체의 세세한 항목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떨나 사실이 많아서얼기도 하지만, 한편 그 사실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의심이 가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어떤 명령이나 사회불순세력, 또는 간첩의 소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들게끔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되어야

오늘 저녁 떼어저면서 「내일 못 만날줴 같군」 이란 노 말이 유행이다. 얼떨하고 공포는 구실되어야 한다. 우리는 얼떨는 하루 무을 한 불안에 떨지는 말아야 한다. 공포는 하나의 병적인 현상으로서 인간의 입과 두뇌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공포는 불안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누군가에 의해 이런 공포분위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말로는 지성을 외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정이 앞서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 모두 마음의 창문을 열자. 마음의 귀를 열자. 우리는 친구요,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인 것이다.

<정치외교학과·3>

신중한 재고뒤에 과감한 행동을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이 과연 가신 님의 피와 맞이 스며 있는 을바른 행동들인가? 행동이 과격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기뻐하고,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슬퍼하는 우

애벌의 레 삶

이 경 찬

영후! 미베르바에는 게나리꽃이 만발했다네. 어제나 풍성하고 탐스러운지 질투가날 지경이라네. 마치 나에게 주어진 인생만 삶은 이 4년밖이 아님가 하는 절실한 생각이 들정도로 4년이란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드는군.

언젠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사람들도 발피를 한다」고.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무렵이었네. 최초로 발피의 고통을 경험한 무렵 죽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지. 유아기를 겪고 있던 나로서는 견딜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내 자신이 성장해가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더군.

「병든 조개만이 진주를 품는다」 첫 강의 시간에 어느 노(老) 교수님이 해 주신 말씀이라네.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는 자(者) 만이 인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지.

머릿 전부터 뽀얗게 먼지가 앉은 일기를 다시 펼쳐게 의었다네. 내가 제일 보고 싶던 친구를 만난 날이었던지 잦군. 그무로 나는 두번째 발피를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라네. 우리는 두른 술을 먹고 사는 애벌레였지.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숨어버리는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괴해 날아나는 것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지 얼기라자 ! 」 이다 이는, 박 생물이 외치고있는 「외계세력의 개입세력」이 법써 프 로 그 램 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지 얼기라자 ! 」 이다 이는, 박 생물이 외치고있는 「외계세력의 개입세력」이 법써 프로그램